

## 통합시 명칭 '전남광주특별시', 약칭 '광주특별시'

시도지사·국회의원 합의, 청사는 광주·무안·전남 동부 균형 운영

통합특별법 이번 주내 발의...6월 지방선거 때 통합 시장 선출키로

논란을 거듭했던 광주·전남통합 지자체 명칭이 '전남광주특별시'로 정해졌다.

〈관련기사 3면·5면〉

약칭으로는 '광주특별시'를 사용하기로 했으며, 현재 운영 중인 전남 동부청사와 무안(남악) 청사, 광주시청사 등 3개 청사를 균형있게 사용하기로 합의됐다.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검토 시도지사-국회 의원 4차 조찬간담회' 결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합안이 최종 결정됐다. 간담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 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 등 지역 국회의원 18명이 참석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통합 지자체의 공식 명칭은 시도민의 수용성과 양 지역의 역사·대표성을 담아 '전남광주특별시'로 결정됐다.

실무편의와 대외적 인지도를 고려해 약칭은 '광주특별시'를 사용하기로 했다.

3차 간담회에서 기안으로 검토돼 논란을 불렀던 '광주전남특별시' 명칭안과 전남소재 주 청사 안은 폐기했다.

청사 운영 방안 역시 특정 지역 행정 쓸림을 방지하고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기각을 잡았다.

현 전남 동부청사와 무안(남악) 청사, 광주청사 등 3개 청사 모두를 균형 있게 유지하고 운영한다는 대원칙에 합의했다. 별도의 단일 주 소재지를 지정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소모적 갈등을 피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번 합의는 통합명칭과 청사 위치를 둘러싼 논란이 통합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 시려는 대승적 차원의 결단으로 풀이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금은 중앙정부로부터 자치분권의 권한·재정을 어떻게 최대한 받아올 것인가를 논의할 때"라며 청사 주소재지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밝힌 바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날 합의된 특례사항과 결정 내용을 최종 정리해 이번 주내에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목표는 2월 국회 본회의 통과다.

계획대로 특별법이 제정되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사상 첫 '통합 특별시장'을 선출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명칭과 청사 문제를 확정한 만큼 이제는 우리 지역의 생존과 미래를 담보할 통합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통합추진특위 공동위원장은 "그간 통합 명칭과 청사 입지 문제로 다양한 걱정과 목소리가 나왔던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화합이라는 큰 틀에서 기준의 잠정안을 모두 내려놓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최종 합의를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양부남 공동위원장은 "특별법안을 제출한 이후에도 지역사회 의견을 듣는 과정을 충실히 거치겠다"면서 "광주시와 전남도의 추가적인 요청이나 제안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 법안에 담아낼 것이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도이치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오늘 김건희 1심 선고 공판 생중계한다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하기했다.

전직 영부인에 대한 선고 생중계는 현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오후 2시 10분으로 예정된 김 여사의 선고 공판과 관련해 "사건의 사회적 관심도와 공공의 이익을 고려했다"며 중계 허가 사유를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실시간으로 송출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명태군

씨 여론조사 결과 무상 수수, 통일교 측 부정한 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총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등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할 경우, 앞서 제포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부부가 나란히 법적 단죄를 받는 초유의 사례가 된다. 특히 여론조사 수수 혐의 등은 윤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묶여 있어 이번 판결이 향후 윤 전 대통령 재판과 겹친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2025년 7월 위대한 합의를 했고 10월 재확인했음에도 한국 국회가 승인하지 않았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이는 한국이 약속한 3500억달러(약 50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뒷받침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직접 겨냥한 발언으로 분석된다. 앞서 미국은 한국 여당의 법안 발의에 맞춰 지난해 12월 선제적으로 관세를 15%로 인하했으나, 실질적인 입법 통과가 늦어지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입법 지연뿐만

아니라 최근 원화 약세에 따른 투자 이행 불확실성, 한국 내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대한 미국 테크 업계의 반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즉각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청와대는

김영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

를 열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캐나다

를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미국으로

급파해 트럼프 행정부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하고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연합뉴스

## 트럼프 "한국 차 관세 25%로 인상"...산업장관 방미 협의

###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작용한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 국회의 무역합의 이행 조치 지연을 문제 삼아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기습 발표했다.

〈관련기사 4면〉

한국이 미국의 관세 인하 조건으로 약속한 대미 투자가 법적 절차 미비로 속도를 내지 못하자, '관세 복원'이라는 초강수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 스소셜'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양국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현행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2025년 7월 위대한 합의를 했고 10월 재확인했음에도 한국 국회가 승인하지

않았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이는 한국이 약속한 3500억달러(약 50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뒷받침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직접 겨냥한 발언으로 분석된다. 앞서 미국은 한국 여당의 법안 발의에 맞춰 지난해 12월 선제적으로 관세를 15%로 인하했으나, 실질적인 입법 통과가 늦어지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입법 지연뿐만 아니라 최근 원화 약세에 따른 투자 이행 불확실성, 한국 내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대한 미국 테크 업계의 반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즉각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청와대는 김영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미국으로 급파해 트럼프 행정부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하고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연합뉴스

P assion [열정], V ision [꿈],  
T 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 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 시대의 명작

A Timeless Masterpiece  
S-Class

### Mercedes-Benz



###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회성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완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인증 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완 서비스센터 사고수리 062)942-7200 / 일반정비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일남율대로 565(도천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S 350 d 4MATIC · 배기량: 2989, 공차중량: 2145, 자동9단, 복합연비: 13.0(도심연비: 11.3, 고속도로연비: 15.9), 등급: 3, 복합CO2 배출량: 148  
· S 450 4MATIC · 배기량: 2998, 공차중량: 2090, 자동9단, 복합연비: 10.0(도심연비: 8.8, 고속도로연비: 12.1), 등급: 4, 복합CO2 배출량: 171  
· S 450 4MATIC L · 배기량: 2998, 공차중량: 2065, 자동9단, 복합연비: 9.9(도심연비: 8.6, 고속도로연비: 12.1), 등급: 4, 복합CO2 배출량: 172  
· S 500 4MATIC · 배기량: 2998, 공차중량: 2105, 자동9단, 복합연비: 9.7(도심연비: 8.4, 고속도로연비: 11.7), 등급: 4, 복합CO2 배출량: 177  
· S 580 4MATIC · 배기량: 3982, 공차중량: 2150, 자동9단, 복합연비: 8.6(도심연비: 7.3, 고속도로연비: 10.9), 등급: 5, 복합CO2 배출량: 200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